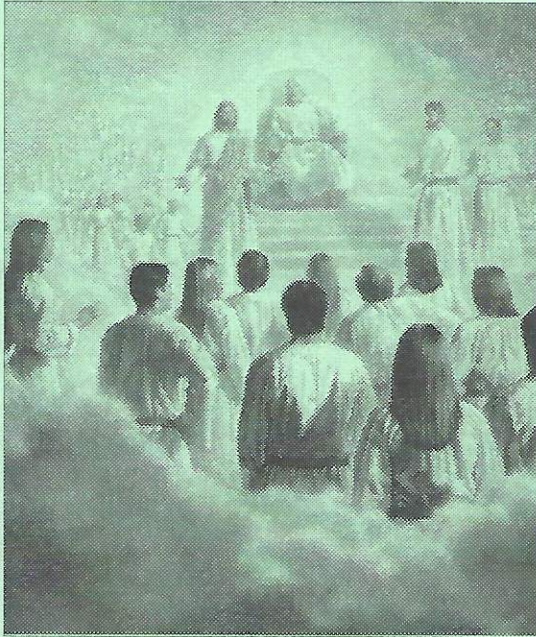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왕 대축일 연중 제34주일
제34권 52호(가해) 2014년 11월23일

[묵상]



그는목자가 양과 염소들을가르듯이 그들을 가를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온 것이다" (Mt.20,25)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로서, 권순봉 요안나, 박숙진 안나
	(생)홍석인 체칠리아, 김일선 베드로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웅 요한, 김옥순 소피아, 이석진 가브리엘, 이중갑 부르노, 이철우 야고보, 먼저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김풍길 바오로, 구옥선사비나, 도나 에드워드, 석아자 리나, 경진 요셉&최선옥 마리아& 경경임 테레사, 오윙봉 테레사, 이윤식 베드로&김경옥 요셉& 최천옥 딸가리다, 정삼선&황기진
	(생) 반비오&반나영 체칠리아, 현시영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홍석인 체칠리아, 최기남야고보&최옥희테레사, 이정훈 안셀모, 서성용베드로, 김기준안젤라, 정동원 마티아&심근영 올리안나, 오순경세실리아, 손명복그라치아, 이상훈사무엘과 직장동료들, 서재원 요한& 서옥분마리아, 오창근베드로사제, 오마우라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 (Ezekiel) 34, 11-12, 15-17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1서(Corinthians) 15, 20-26, 28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5, 31-46

영성제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02	207	207
봉헌	256	267	217
성체	Shout to the Lord	282	309
파견	기뻐하며 왕께	225	238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쇠신

3.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

1) 교회의 쇠신과 함께하시는 성령

종교 개혁 이후 혼란의 상황에서 로울라의 이냐시오 성인(†1556)이 설립한 예수회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d Majorem Dei Gloriam) 라는 모토 아래 교회를 재정비하는 데에 앞장섰다. 필립보 네리 성인(†1595)은 오라토리오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종교적·윤리적 쇠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안젤라 메리치 성녀(†1540)는 우르술라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수도회는 나중에 자선과 여성 교육을 위한 수도회가 되었다. 천주의 요한 성인(†1550)은 열심한 평신도 단체를 설립하였는데, 이 단체는 1572년에 병자 간호를 위한 자비의 형제회의 모체가 된다. 베뮐 추기경(†1629)은 성직자교육에 헌신하는 성직 수도회를 조직하여 프랑스 성직자 쇠신의 기초를 놓았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1660)은 (나중에 ‘빈첸시오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로 불리게 될) 애덕회를 설립하여 빈민을 구호하고 병자를 간호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요한 드 라 살 성인(†1719)은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교육 수도회를 창립하였다. 아울러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1582), 십자가의 요한 성인(†1591)과 같은 탁월한 영성가들이 나타나서 깊은 신비 사상과 영성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주의 깊은 영의 식별을 강조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개혁과 쇠신 운동의 배경에는 교회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 성령에 관한 새로운 각성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관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1897년 레오 13세 교황(†1903)은 성령에 대한 첫 회칙인 「하느님의 직무」 (Divinum Illud Munus)를 발표하였는데, 교황은 이 회칙에서 성령에 대한 인식과 사랑, 충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9일 기도를 바치도록 결정하고 선포하였다. 또한 비오 12세 교황(†1958)은 1943년에 발표한 회칙 「성령의 영감」 (Divino Afflante Spiritu)에서 성경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경 해석의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기에 하느님을 그 저자로 삼아야 하고, 교회 자체에 전수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을 신성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

권력과 사랑

지난 8월, 교황님 방한 때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한 젊은이가 교황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 한국사회는 재물과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런 상황에 우리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질로 일궈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물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복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사랑 얘기? 좀 막연하고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웬지 그날의 ‘사랑의 얘기’는 여느 때와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의 충분한 ‘사랑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결핍된 사랑을 대신 채워줄 보충물로 찾는 것이 주로 ‘권력’입니다.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우위에 세워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되도록 권력의 크기를 최대한 부풀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그에 비해 어떤 이들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려는 듯, 권력 없이도 행복해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맘껏 누리기도 합니다.

권력 없이도 행복해하는 사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결핍을 서로 채워줍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상대를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간단히 말해 ‘권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자들의 횡포를 경험했던 탓인지, 저희 세대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처럼, 전제주의 냄새를 풍기는 이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 왕권국가도 아니고, ‘민’(民)

이 ‘주인’(主)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그것도 우리 삶의 모델인 예수님께 전제주의 냄새가 풍기는 ‘그리스도 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편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과 트라우마도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권력과 사랑’, 즉 ‘권력의 왕’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오래전 책이긴 합니다만, 신영복 선생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짜 모습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 무거운 청동 구리 옷을 입고 오가는 자동차를 내려다보면서 인왕산 청와대 수문장 노릇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충무공의 모습이 아니라, 저 남해 한산섬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왜군과 싸울 전략을 짜느라 고민하던, 백의종군하던 모습이 진짜 충무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성전 안에 모셔진 성상이나 그 위에 금박으로 치장되고 금관을 쓴 화려한 왕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갈릴래아 호숫가나 혹은 먼지 나는 들판을 헤매고 다니며 가난한 민초들을 찾던 ‘사랑과 연민의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산 정상에서

거친 물줄기 정수리로 먼저 받고,
사나운 바람 달래 아래로 보내고,
역센 햇빛일랑 걸려 그늘을 만드느라
산꼭대기엔 물도 나무도 없이 바위만 커다랗습니다.
풀 한포기 넉넉하게 자라질 못하는 것이
마치 가진 모든 것 내게 다 주고
텅 비어있는 아버지 주머니 같아
남들은 호연지기라지만 난 그저
미안코, 쓸쓸코, 애뜻하여라.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낙기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순자 비비안나	정영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크링성원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울뜨레아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대추판매**

- 일시 : 11월 22일 (토)특전미사후, 23일 (주일)
- 판매가격 2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 제33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엘도라도파크 (Long Beach소재)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주교님
- 주관 : 성 바실 성당
- 준비물 : 햇빛가리개 모자
- 점심 : 본당 제공
- 카풀 : 당일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201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의 밤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10불
- 문의: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남가주 한인 M.E sharing 송년 파티

- 일시 : 12월13일(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The Center at Sycamore Plaza
(Lakewood Community Center)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제 : "Joy of the Gospel"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나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참가비 : \$30 (by 12/ 21, \$40 after)
- 참가신청 :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72-3995 (Ext.106)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23일(주일) * 토동2,3반 : 소고기우거지국 (\$3)
* 주일학교 : 주먹밥 (K,3학년)
- 11월30일(주일) * 토서 1반 : 웰빙 우거지국 (\$3)
* 주일학교 : 수업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성택 변복순 유석영 조소영 최이원	정철호 김재영 신경훈 이근태 주대종 최지영	고천용 김현숙 신순철 이민상 차병용	금영도 박성희 안재만 이인석 최기호	김교복 박현주 엄세중 임연조 최영신	김대우 반정우 영희 정인욱 최원석	성전현금	강숙경 박성희 이근태 최원석	고천용 박현주 이민상 최이원	금영도 신경훈 이인석 최지영	김교복 신순철 주대종	김대우 안재만 최기호	김현숙 엄세중 최영신
	합계 : \$3,540							합계 : \$1,910					
주일미사 현금 : \$2,748													

◆ 추수 감사절연휴

- 11월 30일 9시30분미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은 없습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본당 소년레지오마리아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Pr.)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회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해벨 한증] 편가르기

어느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출가시켰는데 자녀들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딸의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의 딸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위가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의 점심도 손수 싸 가지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딸을 그토록 아껴 주는 사위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일어날 생각도 않고, 아들은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고는 점심도 자기가 직접 싸 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동시에 며느리의 행동이 얼마나 괴심한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딸과 며느리의 행동은 같고 사위와 아들의 행동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한쪽에서는 고맙고 한쪽에서는 불편했습니다.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편향성 때문입니다. 내 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는 편가르기는 온전한 사랑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가톨릭 굿뉴스 / 주호식 신부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991-4838 11/15(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요한 701-6343 11/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14(금) 오후 7:30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5780-3258	김대우 비오 920-7647 11/15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홍광선 요셉 991-8556 11/8(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1/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1/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11/7(금) 오전11시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11/8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기호 스테파노213)222-3168 11/3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8(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2 11/14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11/15 (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병록 요셉 503)927-0770 11/14(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박혜은 모니카 377-6752 1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124위 시복특집< 12 > 문영인 비비안나 (1776~1801년)

...제가 공경하는 천주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문영인 비비안나는 한양에 거주하던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던 해에 궁녀로 뽑혀 궁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글씨를 잘 쓰게되자 궁궐에서는 그녀에게 문서 쓰는 일을 맡겼습니다. 스물한 살 되던 1797년에 문영인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잠시 궁궐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한 노파를 만나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1798년, 문영인은 여회장 강완숙의 집에서 주문모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강완숙의 집에 모여 교우들과 교회 서적을 공부하거나 미사를 드렸습니다.

병이 완쾌된 문영인은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했는데, 당연히 궁궐에서는 신자의 본분을 지키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 기도 생활을 하였고, 끝내는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신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쓸 수 있게 된 문영인은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본받으려 하였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자주 순교의 뜻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 그녀는 청석동에 집을 얻어살면서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1800년, 정약중 회장이 한양으로 이주해 오자 그에게 집을 빌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문영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순교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된 후 혹독한 형벌 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며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문영인은 형조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영인은 열심히 교리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문영인은 1801년 7월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25세의 동정녀였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문영인이 형벌을 받을 때에 다리에서 나오는 피가 꽃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떠올랐고 참수를 당할 때는 목에서 나오는 피가 젖과 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길을찾는그대에게>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존재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어 괴롭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을 의심하는 것이 정말 죄가 되나요?

☞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겼던 우리 시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의 내적 일기에도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너무나 깊고 저는 혼자입니다. 하느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렸습니다. 제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깊은바닥에도 내면엔 공허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오면서, 구더기 들끓는 상처를 닦아내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의심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다시 묻게 되고, 그 물음을 통해 진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이며, 하느님께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내가 아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멜리데(Melide)라는 작은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못에서 빠진 채 밑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에 이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뒤, 고해소에 들어가 신부님께 모든 죄를 눈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제는

그에게 사죄경을 외워주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얼마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결심을 하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고 마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럴 때 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은 매번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이 신자의 뉘우침에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오른손을 못에서 빼내서 그 신자에게 직접 구원의 표지인 십자가를 그어주시고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내가 아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단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신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톨릭 굿뉴스 / 주호식 신부